

World Libraries through the travel

各國의 圖書館을 돌아보고(하)

崔 根 滿

(韓國圖書館協會 事務局長)

2. 歐羅巴 諸國

美國에서 40일간의 旅程을 마치고 歐羅巴 여러 나라의 教育制度和 圖書館運營事項 및 文化施設의 保存管理에 대한 調査를 目的으로 11월 15일 뉴욕을 出發하였다. 歐羅巴의 많은 나라 중에서 旅費와 歸國日字 관계로 英國의 런던과 佛蘭西의 파리, 伊太利의 로마, 덴마크의 코펜하겐, 스위스의 제네바 등 5개국만을 選擇하여 방문하였다.

歐羅巴에는 대개가 歷史가 오래된 나라들이다. 그러나 그 歷史에 비하여 圖書館發展은 크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였다. 英國의 公共圖書館制度를 除外한 다른 나라들은 圖書館 發展이 침체되어 있는 것이 現實이며, 國民들의 關心도 美國에 비하여 많이 뒤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歷史와 반영하였든 과거의 文化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여러 種의 博物館과 記念館 등 世界的인 것들이 散在되어 있으며 所藏된 資料들이 圖書館式 整理方法에 의하여 管理, 保存되어 있음이 特色이라 하겠다. 圖書館도 美國의 發展되고 豊富한 資料와 豫算으로 活潑하게 運營하는데 비해 그만큼 못하다는 것이지 아시아 各國의 公共圖書館과 比較하면 매우 우수한 편이다.

이 地域의 大學들은 大部分 오래된 歷史를 가지고 있다. 이 중 英國의 옥스포드大學이나, 佛蘭西의 소르본느(파리)大學 등은 수백만권의 귀중한 藏書가 活用되고 있는 것으로 傳聞되고 있다. 筆者가 兩 大學을 訪問하였을 때에는 마침 休日이기 때문에 內部를 보지 못하고 學校 外部만을 보고 온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各國別로 圖書館 問題란 아니고 社會的 背景 등 重要하다고 느낀 것을 다음에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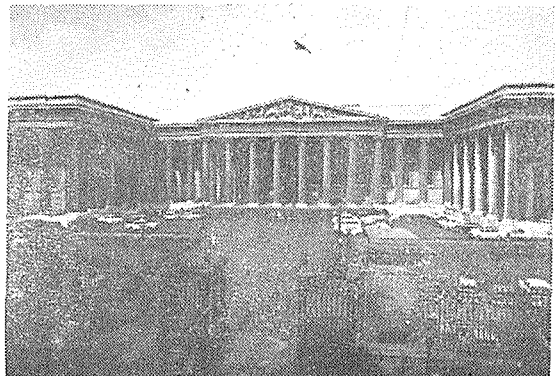
A. 英 國

英國은 立憲君主國으로 5,200만의 人口가 우리 나라 보다 약간 큰 面積(약 24.4萬km²)에 살고 있으며, 잉글랜드(England), 스코트랜드(Scotland), 웨일즈(Wa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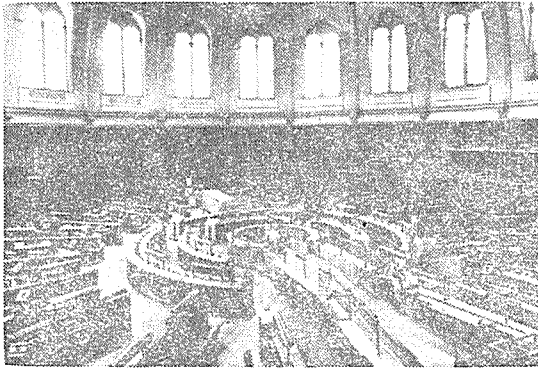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등의 聯合王國(United Kingdom)으로 構成되어 있다.

런던(London)시는 人口 약 1,000萬명이 經濟, 商業을 中心으로 한 舊市街地和 政治, 文化를 中心으로 한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區가 합하여 런던(London)市街를 構成하고 있다. 이 나라에는 全國에 560여개의 公共圖書館이 社會教育機關으로서 全國의인 망을 形成하고 國民들이 내는 도서관제로 運營되며 奉仕가 실시되고 있다. 美國의 公共圖書館의 奉仕活動에 못지 않게 活潑이 運營되고 있음을 런던(London)에서도 볼 수 있다. 이들 도서관이 所藏하고 있는 藏書數는 7千7百萬卷으로 人口 1人當 1.4冊씩 돌아간다.

런던(London)市에는 世界的으로 유명한 大英博物館(British Museum)이 상당히 큰 규모로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이 안에는 맘모스의 閱覽室이 2개가 있고 閱覽室의 內部構造는 높은 圓型 天井과 閱覽席의 배치 등이 美國議會圖書館 本館 閱覽室과 같은 型이다. 이곳에서 英國의 綜合圖書目錄이 發刊되고 있다. 즉 英國의 國立圖書館이 博物館과 같이 併設되어 圖書資料와 세계적인 예술품과 미술품 등 선택된 수십만 種의 資料들이 소장되어 과거 영국 的 國력을 한 눈으로 보는 듯 귀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다. 이곳을 자세히 보려면 2,3일간의 시간이 소요되어야 할 것 같다.



(대영박물관 전경)



(대영박물관 열람실 전경)

런던탑(The Tower of London)은 외국의 탐과 같이 하늘로 높이 솟아있는 것이 아니고 템즈(Thames) 강 타워 브리지 옆에 자리잡고 있는데 옛날에 國事犯(思想犯)을 처형하던 곳이다. 내부에는 박물관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와 금으로 된 英國 歷代 王冠이 貴重室에 保管되어 있다. 中世의 拷問기구와 處刑道具 등이 진열되어 있는 점이 특색이다.

B. 佛 蘭 西

불란서는 민주공화국으로 약 4,500만의 人口가 우리 나라의 2배반(55萬km²)이나 되는 넓은 面積에 살고 있다. 농업국이라고는 하지만 항공기와 자동차 공업이 발달되어 있다.

파리(Paris)시의 인구는 약 800만이고 13世紀頃 歐羅巴의 政治, 經濟, 文化의 中心地 役割을 하였으며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세느강(Seine江)을 中心으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다. 오래 전에 이미 區劃 整理가 실시되어 上·下水道의 完備, 地下鐵의 발달로 交通이 편리하다. 베르사이유(Versailles)宮殿, 개선문 등 歷史的 遺産이 많으며 藝術의 都市라고 이 곳 사람들은 누구나 자랑을 한다. 파리를 드나드는 세계 각국의 관광객이 1년에 600萬명이 넘는다고 한다.

도서관의 發展은 지금까지 크게 기대할 수 없으나 앞으로 佛蘭西 政府가 많은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한다. 現在로는 公共圖書館의 數나 現存하는 圖書館이 利用面에 있어서 英國이나 美國에 월등히 뒤지고 있다. 그러나 圖書館과는 對照的으로 博物館이나 記念館은 매우 發展되어 있다. 파리(Paris)市에는 書店이 많이 눈에 띈다. 圖書館 利用이 不便하여 市民들이 書店에서 冊을 구독하기 때문인 것 같다.

파리 한 북관을 흐르는 세느강 右岸에 자리잡은 루우브르궁전(Palais du Louvre)의 루우브르博物館은 1932년에 세계에서 제일 큰 大美術館으로 開館하여 20萬점의 文化遺産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전시된 美術品은

대부분 大作으로 世界的인 藝術의 價値를 지니고 있다. 특히 선택된 자료중에는 에집트의 미이라와 값진 藝術品과 美術作品들이 展示되어 있다. 이곳은 英國의 大英博物館보다 규모가 더 크고 所藏한 博物이 더욱 많다. 이 밖에 베르사이유궁전은 파리에서 약 12km 떨어진 곳에 웅장하게 자리잡고 있다. 루이 14세가 시작하여 15세가 영화를 누리다가 佛蘭西 革命으로 나폴레옹 집권 후부터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이 宮에는 불란서 歷代 戰爭의 勝戰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그 중 代表的인 것 1점씩이 전시되어 있다. 戰爭史를 한 눈에 보는 듯 하며 과거의 루이 14, 15세가 궁중에서 생활하던 모습 그대로 비품들이 놓여 있으나 革命당시 없어졌던 물건들이 요즈음 여러 나라 사람들로 부터 기증 받아 하나씩 제자리에 돌아 온다고 한다. 방마다 또는 넓은 홀에 大作의 그림들은 매우 값진 것들이다. 그루니美術館(Musée de Cluny)에는 中世의 藝術品 2만점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宮中生活을 그린 벽화 등은 유명하다. 이 밖에 동양의 文化遺産을 가지고 있는 博物館들이 여러 곳에 있다.

UNESCO 本部와 圖書館

파리시의 폰테노이(Fcntenoy)광장에 Y자형의 현대식 8층건물이 UNESCO본부 건물이다. 이 건물 1층 오른 쪽에 圖書館이 자리잡고 있다. 신재숙 선생의 안내로 도서관 운영사항을 들으며 견학을 했다. 각국의 UNESCO에서 나온 책은 물론 여러나라에서 발간된 英語, 佛語, 露語, 獨語, 스페인어 등의 圖書 약 30,000권의 장서를 蒐集, 整理하여 本部要員들에게 利用시키고 있다. 현관 복도에는 各國 委員會가 發刊한 책자가 전시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UNESCO위원회에서 發刊된 各種 資料가 포함되어 있다. 이 도서관 역시 미국의 백악관도서관과 UN본부 합마솔드기념도서관과 같이 인상에 남는 圖書館이었다. 특히 불란서에 체류하는 동안 신재숙 선생께서 필자에게 베풀어 준 후의 와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

C. 伊 太 利

이태리는 民主共和國으로 5,200萬의 人口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큰(30萬km²) 면적에 살고 있다. 지중해로 뻗은 長靴型의 이 半島는 시실리아(Sicilia), 에루바섬 등 70여개의 작은 섬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나라이다. 기후는 우리나라와 같이 맑은 날이 많다. 로마 제국 이후 2,700년와 긴 歷史를 가졌으며 루네쌍스(文藝復興)의 發祥地이다. 歐羅巴에서는 가장 오래된 그리스도敎 나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遺産들이 많으며 世界史에 나오는 偉大한 藝術家들의 作品을 볼 수 있



다.

로마(Rome)市는 人口 300萬이 살고 있으며 시내 곳곳에 Rome帝國의 위용을 자랑하며 번영하였던 당시의 文化遺産을 2,000年동안 파괴된 그대로 保存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시내의 한 복판을 흐르고 있는 티베르강(Tiber江) 오른쪽에는 카톨릭교의 본산인 버경검(Vaticano)宮殿이 있으며 이 區域을 Vaticano市로 하여 人口 1,500명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제일적은 獨立國으로 되어 로마市와 인접하고 있다. 이태리 역시 佛蘭西 파리 못지 않게 觀光客이 많이 드나드는 觀光國이다.

이 나라의 圖書館은 統計로 보아 4,000여개의 公共圖書館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숫자 가운데는 우리 나라의 마을문고 비슷한 것까지 포함된 듯 하다.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뒤지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로마시에 있는 몇 개의 圖書館도 活氣를 띠지 못하고 있으며 책을 대출하는데도 많은 時間이 所要되고 이용면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이 利用하는 것 같지 않았다. 이와는 反對로 博物館과 記念館 등이 대단히 많은 편이었다.

부루게세 美術博物館(Galleria Museo Borghese)

Rome市에서 제일 큰 公園에 있으며 그리스아조각(彫刻)과 루네쌍스의 藝術을 비롯하여 古代에서 近代에 이르기까지 繪畫, 彫刻의 寶庫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값있는 展示品이 많다.

그리고 로마국립박물관(Museo Nazionale Romans)에도 로마古代의 重要文化財가 數천종 進열되어 있다.

D. 덴 마 크

덴마크는 立憲君主國으로 약 480여만의 人口가 우리나라의 1/5에 해당하는 면적(4萬 3千km²)에 살고 있다. 덴마크 전체 인구가 우리나라 서울 人口보다 약간 적은 편이며 구라과 北洋에 位置한 스칸디나비아 3國중 하나이다. 第2次 世界大戰때에는 獨逸軍이 占領

하여 聯合軍으로부터 폭격을 받은 바도 있다. 그러나 第2次 大戰이후 中立을 유지하고 社會保障制度가 잘되어 있는 나라의 하나이다. 이 나라는 악조건의 기후와 습한 國土를 개발하여 酪農과 農業을 發展시켜 성공한 나라로 文化水準이 높은 農業國의 하나이다.

코펜하겐(Copenhagen)市는 人口 130萬이 살고 있는 都市로 北歐의 파리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北歐地域에서는 제일 큰 都市로 1186년에 城의 要塞를 구축하고 15世紀에 王城으로 되면서 부터 덴마크의 중심이 되었다고 한다.

이 나라의 도서관 제도는 980개의 공공도서관이 全國에 散在하여 社會교육기관으로 전국적인 망을 이루고 있다. 1천 3백 40만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어 인구 1인당 2.7책이라는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각종 資料는 자유롭게 閱覽, 貸出할 수 있어 농어민의 기술 개발과 文化 向上에 다른分野의 社會保障制度和 같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各種博物館과 記念館도 歐羅巴의 다른 나라와 같이 매우 훌륭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國立博物館(National Museet), 工藝博物館(Kunstindustri Museum)등에는 스칸디나비아의 歷史와 文化에 관한 자료가 進열되어 있고 과거에 使用하던 배와 意匠品 등 귀중한 것들이 전시되어 덴마크의 文化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E. 스 위 스

스위스는 連邦共和國으로 590萬의 人口가 우리나라의 1/5에 해당하는 면적(41,000km²)에 살고 있다. 국토의 60%가 알프스(Alpus)산맥으로 形成되어 地球上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이 나라에는 눈(雪)을 볼 수 있고 해발 2,000m가 넘는 산봉우리를 개발하여 세계 각국의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들고 있다. 國民은 伊太利, 獨逸, 佛蘭西, 오스트리아 등 4개국의 民族이 혼합으로 形成된 永世中立國이다. 首都는 츄리히(Zürich)로 작은 도시이며 精密工業과 酪農業이 發達되어 있다. 永世中立國이기 때문에 國際機構가 많으며 국제회의가 자주 열린다.

제네바(Geneva)市는 人口 18萬의 스위스 제일의 도시이다. 제네바湖에서 흐르는 로노강을 중심으로 兩便에 都市를 形成하고 있다. 商街는 大部分 時計商과 製作工場이다. 그리고 時計外의 정밀기계공업이 발달되어 상점 윗층에는 대부분이 공장이다(가내공업)

특히 이 도시에는 國際機構가 많이 있다. U.N本部의 歐羅巴 事務局(前 國際聯盟(U.N의 前身)건물)이 있고 赤十字社 本部, 國際勞働機構를 위시한 여러가지

기구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우리 나라 스위스 주재대사가 두 사람이다. 한 분은 스위스 주재대사로 “쥘리히”에 주재하고 한 분은 제네바 주재대사로 주로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 관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도서관은 제네바 시립도서관을 위시하여 全國에 도서관망을 이루고 있으나 국토의 60%가 산악이기 때문에 도서관 수는 적은 편이지만 풍부한 자료를 소장하고 이용시키고 있다. 특히 정밀공업(時計)에 관한 文獻이 獨逸語, 佛蘭西語, 伊太利語, 英語 등의 言語로 된 것이 많이 수집 정리되어 利用시키고 있기 때문에 精密工業 技術開發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네바大學 圖書館은 규모는 크지 않으나 아담하게 準備되어 있었다.

藝術歷史博物館(Musée d' Art et d' Histoire)에는 15세기 이후의 時計를 世界 各國에서 蒐集 展示하고 장식품, 공예품, 제네바파의 그림이 진열되어 있다.

3. 아시아 各國

구라과 5個國의 訪問을 마치고 이태리 로마에서 출발하여 이집트의 카이로(Cairo), 이란의 테헤란(Teheran), 인도의 뉴델리(New Delhi), 태국의 방콕(Bangkok)을 경유하여 홍콩과 대만, 일본 등 아시아 3개국을 방문했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 오면서 느낀 것은 서양과 동양의 경제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각국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출증대와 관광객 유치 등 外貨획득에 노력하고 있는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그들의 生活水準은 겉으로 보아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 올 수록 빈부의 격차가 심한 것이 눈에 띈다. 국력에 비례하여 교육과 도서관 개발에 힘쓰는 비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라과 각국에 비하여 특히 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홍 콩

홍콩(Hong Kong)은 英國의 直轄殖民地로 400萬의 人口가 우리 나라의 1/220에 해당하는 1,000km²의 면적에 살고 있다. 中共의 廣東省 南쪽 九龍半島와 香港島로 都市가 形成되었으며 港口는 世界 3大良港의 하나이다. 九龍半島와 香港島 사이로 흐르는 自然의 바다를 두고 兩 海岸에 크게 발달되어 있다. 이 自然의 바다는 10,000噸급의 선박이 수십척씩 일시에 정박할 수 있는 良港으로 中繼貿易의 自由港이다. 自由貿易港이기 때문에 世界 各國의 물건들이 免稅 판매되고 있어 다른 나라보다 염가로 물건을 살 수가 있는데 香港

에 요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航空路도 매우 發達되어 世界 各國의 航空會社가 航路를 開設하고 航空社가 設置되어 있다. 各국 사람들이 사업과 관광으로 출입하기에 매우 편리하도록 되어 있다.

九龍市(Kowloon City)는 市 中央을 貫通하는 베이산통(Nathan Road)을 中心으로 나이트 클럽, 식당, 영화관, 호텔, 상점 등이 兩便에 자리잡아 변화가를 이루고 新界(New Territories)는 東西로 通하는 반드리통(Boundary St.)으로 올라가면 中共國境線에 도달한다. 香港島는 빅토리아市(Victoria City)로 九龍半島를 向한 北部海岸線을 따라 高層 建物이 密集되어 있으며 550m의 높은 高地가 계단식으로 산꼭대기까지 개발되어 건물이 들어서 있다. Hong Kong의 夜景은 매우 아름다워 100萬弗의 夜景이라고 이곳 사람들은 자랑한다. 일반주택은 대부분 고층의 아파트이며 住民은 90%가 중국인이다. 교육은 Hong Kong 大學을 中心으로 初·中等教育이 發達되어 있다. 공공도서관은 매우 부진하며 Hong Kong大學 圖書館이 내용면에서 充實을 기하고 있으며 中國語의 貴重本과 英語로 된 資料가 많은 편이다. 九龍半島와 香港島 사이의 바다(約 1km)를 수십대의 페리호(여객과 자동차가 함께 타는 여객선)로 陸續化되어 있다.



B. 自由中國(臺灣)

中華民國은 民主共和國으로 1,440萬의 人口가 우리 나라의 1/6에 該當하는 面積(36,000km²)에 살고 있으며 東南아시아 諸國中 亞熱帶에 속하는 臺灣島는 언제나 여름 철로 常綠이 우거진 아름다운 섬의 하나이다. 지금은 中華民國의 省中의 하나로 中華民國 政府의 臨時所在地이다.

臺北(Taipei)市는 人口 約 170萬人이 살고 있는 대만 제일의 도시로 臺北盆地의 中央部 右岸에 位置하여 中國風의 市街地가 形成되어 있다. 市 中央에 總統府를 中心으로 中央銀行, 外交部, 法院 등의 官廳街를 이

루고 四方이 방사선으로 펼쳐져 있다. 이곳은 中共의 위협으로 不安할 것 같으나 가 보면 平和스럽고 安定된 國家로 物價가 싸며 빈부의 차이가 적은 것 같다. 마침 11월 30일 午後에 도착하였는데 지난 69년 5월에 개최한 國際會議에 中國代表로 參席하였던 張東哲(國立中央圖書館 섭의 과장)씨가 職員 黃淵泉씨와 우리 나라 교포 許璧(國立臺灣師範大學에서 博士課程 履修中)씨와 같이 만나 2일간의 計劃을 作成했다. 마침 中國圖書館學會(協會)가 12월 1일부터 1주일간을 第1回 圖書館週間으로 設定하고 行事를 實施하는 첫 날이기 때문에 이곳 訪問이 매우 의의가 있었다. 짜여진 計劃에 따라 國立中央圖書館과 國立臺灣大學圖書館, 圖書館學科臺灣省立圖書館, 國立臺灣師範大學圖書館, 故宮博物院(National Palace Museum)등을 방문하고 中國의 典籍 등 귀중본의 藏書와 圖書館 運營事項을 見學하였다. 歐美各國의 圖書館奉仕와 같이 擴大되려하는 아직 요원한 것은 우리 館界의 立場과 같은 共通의 問題點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國立中央圖書館의 30萬권의 장서와 故宮博物院의 2萬권의 典籍등을 本土에서 이 곳으로 옮길 때 제일 먼저 가지고 왔으며 이 밖에 5,000년의 中國歷史를 통하여 물아진 30萬點의 文化遺産과 藝術品을 이곳으로 옮겨다 博物館을 만들고 늘 展示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人類가 最初로 뼈에다 글자나 그림을 새겨서 印刷를 한 卍(刻骨)과 磁器類 등 값진 文化財들이 대부분이었다. 古文書, 典籍의 貴重本등이 博物館 展示室에 항상 交換 展示되고 있다. 특히 國立中央圖書館長은 중앙정부가 圖書館의 發展을 도모하고자 美國大學에서 教授로 오래 있던 圖書館學博士 李志鍾氏를 초빙하여 부임시켰다. 이 분은 부임한지는 얼마 되지 않으나 德望있는 분이라 앞으로의 活躍이 크게 기대된다고 한다.

中國圖書館界는 大端히 熱意를 가진 國立臺灣大學圖書館學科長 賴永祥教授(中國圖書館學會長)를 중심으로 圖書館學科 教授와 指導層에 있는 各級 圖書館長들 10여명이 힘을 합하여 館界 發展을 도모하려고 努力하고 있는 것을 필자와 같이 意見을 나누면서 느끼었다. 이들의 노력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중국 도서관계가 크게 발전될 전망이며 兩國의 協力이 증진되어야 하겠다. 우선 協力の 方案의 하나로 兩國 專門職의 交流를 통하여 정보의 교환과 기술의 공동 개발, 동양서지사업 개발에 공동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이곳에 체류하는 동안 이곳 館界 指導者들과 許璧 先生의 厚意에 感謝한다.

C. 日 本

일본은 우리와 몇해 전부터 전문직의 교류가 되고 있어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1969년 10월 3에 筆者

가 渡日하였을 때 圖書館界와 教育界를 두루 見學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로 日本圖書館協會와 兩國의 현안문제만을 가지고 事務局長 叶澤清氏와 協議하였으며 교류를 더욱 活潑하게 하자는데 意見을 같이 했다.

지난 번 갔을 때 學生들의 메모로 들어가지 못했던 東京大學 圖書館을 見學하기로 하고 가노자와(叶澤) 일본도협 사무국장과 같이 방문했다. 동 大學 境內는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문리대 경내와 비슷한 꼴이나 크기는 약 3배정도 되는 것 같다. 도서관은 學校 正門에서 우측으로 약 50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으며 5층의 큰 건물이 바로 도서관이다. 이 때에도 학생들이 메모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주력이 도서관으로 온다고 경비를 엄하게 하고 있었다. 이유인즉 총장이 집무하던 大學本部 建物이 1969년도 메모때 파괴된 그대로 복구되지 못하여 동 도서관내에 총장집무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田邊 廣(整理課長)씨가 알려 준다. 館長은 1969년 9월부터 松田智雄교수가 부임하였는데 經濟學博士로 同大學의 中진교수라고 한다. 필자와 가노자와(叶澤)사무국장을 위하여 회의도중 잠시 시간을 내어 의견을 交換하고 앞으로 相互協力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田邊씨의 안내로 도서관을 자세히 견학하였다. 이 대학에서는 가장 큰 건물인 이 도서관에는 340만권의 장서가 소장되었으며 두개의 크고 넓은 열람실과 參考室, 開架 열람실, 國際聯合자료실, 圖書館學資料室 외에 外國法文獻센터, 新聞資料센터, 아시아자료센터, 어학실습실 등이 있으며 開架열람실에는 一般敎養圖書 16,000권과 각 학부 各科 教授들이 指定한 지정도서 1만권이 배가되어 자유스럽게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증가되는 자료때문에 건물 면적이 적어 많은 애로를 느껴 각 건물에 분관도서관이 많이 있으나 앞으로 미국식으로 분관을 더욱 확대하여 分散 수용, 이용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이 도서관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아시아 자료 가운데 우리나라의 귀중본 원본을 많이 소장하고 있었다. 우리도 과거와 같은 잘못으로 자료가 외국으로 흘러 나가지 못하도록 강구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결 언

이상 미국, 구라파, 아시아로 區分하여 여행중 느낀 점을 도서관을 중심으로 또 도서관과 연관이 있는 분야와 각국의 사회적 배경 등을 아는 범위내에서 소개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전문직종에는 반드시 전문적 단체나 연구기관이 있고 이 단체나 연구기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전문적으로 인정받고 있

(8p에 계속)

1972년을 국제도서의 해로

제16차 UNESCO정기총회는 “모두를 위한 책(Books for All)”을 표방하고 1972년을 세계도서의 해(International Book Year; 이하 IBY라 한다)로 설정할 것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담당 분과위원회는 125개 회원국이 참가한 한 회의에서, 세계의 관심이 지역사회에 있어서 도서의 역할에 집중될 수 있도록 1972년을 같은 해로 선포할 것을 요구하는 통신문을 전달하였다.

총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전반적인 행사계획을 승인하였는데 그중 비개의 주요한 골자는 다음과 같다.

- ① 著作과 번역의 장려 : 저작권의 존중
- ② 도서 출판과 배포 장려 : 도서관 발전을 포함
- ③ 독서습관의 증진
- ④ 교육분야, 국가간의 상호이해, 평화적 협조수단으로서의 도서

IBY에 대한 계획은 세계 출판업자, 저자, 도서관인, 서적판매상들의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도서출판 및 배포기술에 있어서 최근의 비약적인 발전에서 오는 최대의 이익을 확보함으로써 이번의 Unesco행사를 지원하는 한 수단으로 삼았다. 이러한 비약적인 발전은 이번 행사를 위해 20개국과 접촉한 출판사 Robert Escarpit씨의 한 연구조사에서 “도서혁명”으로까지 표현되었는데 氏에 의하면 현대 세계는 20년 전에 비해 2배의 독자와 3배의 도서가 증가하였으나 세계인구의 절대다수의 기본적인 요구는 만족시키지까지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Unesco가 1972년을 IBY로 채택한 일을 지금까지 유례가 없던 하나의 “역사적”사건으로 규정하고, 모든 통신수단 가운데 도서는 가장 간편하며,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러한 행사는 도서의 영광스런 과거에 찬사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도서의 장래를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도서 및 도서계획(International Book and Library Programs)”에 관한 美政府자문위원회(Government Advisory Committee)는 지난 11월 Washigton에서 모임을 갖고 IBY를 돕기위한 특별소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소분과위원회 의장에는 Emerson Greenaway(전 ALA회장 전 Philadelphia도서관장)씨가 일하며, 부의장에는 Theodore Wauer(Grolier교육연구소장)씨, 교문에는 John G. Lorenz(LC Deputy)씨인데 이 위원회는 Unesco, 국제민간기구등과 협조하여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한 기금마련을 돕는 등 많은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海外學術雜誌購讀案内

KOP Subscription Guide

⇒敝社는 国内唯一의 썽스크립션, 에이전시로서 文化公報部の 許可(第50号)를 얻어 外国定期刊行物 予約業務를 開拓하여 왔으며 數年間 유네스코 韓國委員會의 傘下 輸入代行機關입니다.

對內的으로는 여러가지 惡條件을 克服하고 業務擴張에 다른 能率的인 事務體制를 이룩하였으며 對外的으로는 世界의 坊坊曲曲을 카바하는 屈指의 代理店과 巨大한 出版社 1,500餘社와 業務를 提携, 龐大한 海外 썽스크립션, 네트워크를 形成하므로써 時時刻刻으로 變化하는 人文, 科學技術情報의 供給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數量의 多寡를 不問하고 購讀者 諸位의 썽스크립션 인포메이션 리퀘스트에 應하고 있아오니 많은 利用 있으시기 바랍니다. 연락 즉시 案内書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日本書籍販賣案内《

⇒今般 敝社는 日本 丸善株式会社와 代理店 계약을 체결하고 建築設計資料集成 씨리즈를 独占 販賣하고 있아오니 고객제위의 많은 利用있으시기 바랍니다.

書名	著者名	出版社名	日 価
建築設計資料集成 第一卷	丸善 編	丸 善	¥ 3,000
建築設計資料集成 第二卷	丸善 編	丸 善	3,500
建築設計資料集成 第三卷	丸善 編	丸 善	3,500
建築設計資料集成 第四卷	丸善 編	丸 善	3,700
建築設計資料集成 第五卷	丸善 編	丸 善	출 版 準備中
建築設計資料集成 第六卷	丸善 編	丸 善	4,800

(기타 建築·土木關係書籍 多量 販賣中)

丸善株式会社

韓國總代理店

KOP 韓國海外出版物株式會社

서울特別市 鍾路1街 71 永韓빌딩
雜誌 業務部 74-3783
書籍 販賣部 73-4262